

데스크시각



송기동 문화2부장·편집국 부국장

“밝은 저 달님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明月幾時有)/ 술잔 들고 저 푸른 하늘에 물어본다(把酒問青天)…” 북송 시대 시인 동파(東坡) 소식(1036-1101)이 지은 노랫말(詞) ‘수조가두’(水調歌頭)의 첫 구다. 추석날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생을 그리며 지었다고 한다. 이보다 300여 년 앞서 당나라 ‘시선(詩仙) 이백(701-762)은 ‘파주문월(把酒問月)’에서 “푸른 하늘에 저 달은 언제부터 있었나(青天有月來幾時)/ 나 술잔을 멈추고 한번 물어보노라(我今停杯一問之)”라고 읊었다. 동파의 시는 바로 이에 대한 오마주(hommage)였다.

1965년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1932-2006)은 뉴욕 보너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중 TV 12대로 만든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달의 위상 변화를 네모나 브라

한가위 둥근달에 묻는다

운관 속에 구현했다. 작품 제목은 ‘달은 가장 오래된 TV’(Moon is the oldest TV)였다. ‘달이 TV라니’ 하면서도 누구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색적인 작품이었다. 동양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에게 친화적인 볼음을 던지는 신개념 비디오키트의 탄생이었다.

달빛에 물들면 신화 돼

달은 시뿐만 아니라 소설·그림·음악·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소재로 즐겨 활용됐다. 특히 우리 옛 그림에는 달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다. 조선 중기 탄은 이정(1554-1626)의 ‘문월도’(問月圖)는 이태백이나 소동파의 시구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비스듬히 기울거나 아래 앉은 한 처사가 오른손을 들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키고 있다. 그가 달에게 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정과 비슷한 시기 활동한 문인화가 이경윤(1545-1611)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월하탄금도’(月下彈琴圖) 역시 달을 보며 즐없는 거문고를 타고 있는 선비를 묘사했다. 손철주 미술평론가는 최근 인터넷에서 우리 옛 그림에 달을 담은 작품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 ‘햇빛에 비래면 역사

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다. 명명백백한 태양 아래서는 ‘팩트’만 있는 것이다. 으스스한 달이 뜨는 순간, 그때부터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추석은 햇빛이 아닌 달빛의 풍속이다. 음력 8월 보름은 북부터 씨를 뿌리고 비지람 흘리며 일귀 온 오곡백과가 익어 수확하는 때다. 농경문화 속에서 이보다 좋은 시기가 또 있을까? 추석의 기원은 2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3대 왕인 유리왕은 6부를 정한 뒤 이를 돌로 나누어 두 명의 왕녀로 하여금 각각 부서 내의 여자들을 거느려 8월 보름까지 한 달간 배를 짜게 하는 경쟁을 벌이도록 했다. 그 결과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놀이를 했다는데서 한가위가 유래했다는 것이다.

너도 나도 고향 찾지만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며 전통적인 추석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를 겪으며 지금은 농경문화 속의 추석과는 너무도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옛 그림 속에서 ‘신화’가 되는 은은한 달빛의 정서는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다. 함께 수확하며 공유하던 공동체의 화합 정신도 희미해졌다. 추석을 쇠는 문

화도 달라졌다. 차례 음식은 직접 장만하기보다는 반찬 업체에서 만든 것을 소량 구입해 차리기도 한다. 성묘 또한 추석 당일보다는 번잡한 교통난을 피해 미리 해버린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졌다.

추석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사람들은 설레는 맘으로 장사진을 이룬 거북이 귀성 행렬에 묻혀 고향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과 동글게 둘러앉아 TV를 보듯, 보름달을 바라보며 이야기꽃을 피울 것이다. 하지만 아날로그를 벗어나 디지털 기술 시대로 치달은 현시대에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앞으로도 음력 8월 보름이면 변함없이 떠오를 둥근달에게 묻고 싶다. 10년, 100년 뒤에 추석은 어떻게 변할까? 어쩌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일컫는 귀성 행렬도 똑 끊어지고, 이름뿐인 명절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소동파의 시는 이렇게 끝난다. “다만 우리 모두 오래오래 살아서(但願人長久)/ 천리 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름다운 저 달님 구경할 수 있기를(千里共嬋娟).”(유병례 지음, ‘송사(宋詞) 30수’ 중)

/song@kwangju.co.kr

은폐칼럼



김창균 광주 예술고 교감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직한, 요즘은 웹 게임으로도 볼 수 있는 ‘틀린 그림 찾기’ 놀이가 있다. 양쪽 그림을 대조하여 상이한 부분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하고, 시간 제한이 더해지면 긴장감에 자못 신경이 곤두서기도 한다. 그런데 왜 틀린 그림일까. 단순한 차이 찾기인데도 차별을 두어, 한쪽은 올바른 그림이고 반대쪽은 그릇된 그림이란 말인가.

언어는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생각과 느낌을 형성하고 규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고(思考)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학자들은 잘못된 용어 사용이 ‘인지적 오류’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다른 그림 찾기’라고 부를 때 ‘차별’에서 ‘차이’로 인식의 지평이 전환될

틀림 아닌 다름

수도 있을 것이다.

소가 초식 동물이라는 사실도 상식으로 통한다. 그런데 미생물학자인 마르크 앙드레 슬로스는 ‘흔자가 아니야’란 책에서 이게 오히려 지적한다. 소는 네 개의 위를 가지고 있는데, 되새김위는 그 속에 있는 박테리아와 균류, 그리고 섬모충류들의 발효 작업장이라고 한다. 이들은 메탄가스, 수소, 휘발성 지방산 등을 만들어 내고, 이 지방산들이 소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황당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개들은 풀을 먹기도 한다. 육식 동물의 대표 격인 호랑이도 필요시 풀을 먹는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기분이 우울할 때면 알코올이 발효된 열매를 찾아 먹기도 한다. 그러나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로 양분하는 방법은 학문적 편리함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보편진리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양분하여 나와 상대로 편을 가르게 되면 자칫 흑백 논리에 빠지거나, 근거 없이 감정에 따라 결론 짓는 감정적 추리 등의 바

람잡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나아가 편을 갈라 같은 편끼리는 사고와 행동의 일치를 강요하게 되고, 우월성의 증표가 되어 상대를 차별하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오른쪽으로 올바른 편을 대신하니 왼쪽은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오른손은 ‘바른손’이고, 직장에서 직위가 떨어지면 ‘좌편’(左邊)이며, 서열의 자손은 ‘좌족’(左族)으로 불린다.

양분법적 사고 속에서 정답을 정해 놓게 되면 사고가 경직되거나 편향될 수 있고, 이를 의식한 나머지 자유롭게 사고하지 못할 개연성도 있다. 짐지는 아이 침대 위에 깔을 놓아두어도 될까 싶지만, 베트남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 머리맡에 깔을 둬으로써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도 록 기원하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또한 아이가 잠을 못 자고 보채면 베개 밑에 깔을 놓아두기도 한다. 깔이 아이를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분적인 것에 근거하여 전체 경험을 선별해 판단해선 안 될 것이며, 어떤 사건이나 한 개인의 경험을 잣대로 눈앞의 상황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

가하는 일도 삼갈 일이다. 사람들에게 ‘+’가 새겨진 카드를 보여주면 수학자는 ‘덧셈’이라 하고, 선부인과 의사는 ‘배꼽’이라 한다. 목사는 ‘십자가’, 교통경찰은 ‘사거리’, 간호사는 ‘적십자’, 약사는 ‘녹십자’라고 대답하는 법이니 말이다.

한가위 명절을 맞아 막막한 길을 뚫고 민족 대이동을 하여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문화평론가 도정일은 “추석은 우리에게 통합의 날이며 이 통합은 문화적 경이다. 어제까지 다부던 사람들도 추석 앞에서는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친지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좌우의 진영 논리를 앞세운 편 가르기가 재현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인간이 인공 지능에 비해 우월한 영역이 공감과 상상력일진대, 온 세상을 골고루 밝게 비추는 한가위의 근본 정신을 세상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는가. 컴퓨터도 이진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시대에 이분법적 양분 논리 속에 갇혀 지낼 이유는 없다. 고향 집 한가위 보름달의 넉넉함을 배워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다가서고, 공생과 상호 의존의 지혜를 더불어 나누길 바란다.

기고



조택수 (사)정음사문화제 제정위원회 이사장

외갓집 하면 달리 무엇을 해도 잘 받아 줄 것 같은, 묶인 줄도 풀어 줄 것 같은, 여유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방학만 되면 그 먼 곳을 향해 달려가던 때가 있었다.

오늘 모임이 있어 약속 장소에 30분 먼저 도착하니 시간이 어정쩡하기에 식당 앞 건너편에 있는 찻집에서 커피 한잔할 겸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니 유자차가 먼저 눈에 들어와 “여기 유자차 한 잔 주세요” 하니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먼저 주문부터 받아야 하는데…” 하며 미안해한다. 손님이 없는 조용한 공간에 혼자 앉으니 그리니 앉아 달콤한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자차가 시기를 기다리니 불현듯 유자나무가 있는 외갓집 생각이 난다.

외갓집에 처음으로 간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였다. 겨우 반년 차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던 터라 바깥 세상

외갓집

구경은 처음 하는 셈이다. 고향을 떠난 후 처음 가는 친정 나들이는 6·25 전쟁에 참전하신 후유증으로 큰외삼촌께서 돌아셨기 때문이다.

기차가 출발하니 전선주도 달리고 집과 논밭들도 기차를 따라 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만 보내기가 불안하셨는지 동행하신 아버지께, 어린 나는 신기하고 놀라서 “아버지, 집도 따라오고 전봇대도 따라오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니 소란하던 기차 안은 웃음 바다를 이었다. 몇 째인 나는 나를 어머니는 감싸 안아주셨다. 검은 연기를 산 아래로 흘리고 숨을 몰아쉬듯, 칙칙 거러며 장성갈재를 넘은 기차가 송정리역에 도착하니 순천 방향으로 가는 열차로 갈아탔다. 아버지는 거기까지 배웅하고, 어머니와 나는 조금은 불안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벌교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시골벽적인 열차 안은 마치 도떼기시장 같았다. 긴 골방대를 피워 대머리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는 할아버지의 담배 연기가 천장을 휘젓는다. 마치 저번 무렵 우리 집 굴복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앞에 앉은 나의 코를 자극했다. 보성에서는 직접 잡은 해산물을 함석 대야에 담아 이고 벌교 장에 팔려 가는 아주머니 일행의 걸쭉한 사투리도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

려 해 질 무렵에야 벌교역에 내렸다. 내리자마자 역 앞의 버스정류장으로 가고 흥 가는 버스를 알아보니 조금 전에 막차는 떠났단다. 내일 첫 버스 시간을 알아본 후 어머니를 따라 역전 거처에서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갔다. 기차 안에서 삶은 계란에 카스텔라 빵(그때 먹어 본 빵 맛은 지금껏 최고였던 것 같다)까지 먹었기에 어머니는 연신 “제할라. 누가 안 뱉어 먹으니 천천히 먹어라”고 당부하신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함께 하시고는 주인 아주머니가 자는 안방에서 나와 함께 잘 수 있었다.

새벽에 식사를 거른 채 고향 가는 첫 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비포장도로여서 울퉁불퉁한 신작로 길을 먼지를 뒤집어쓴 채 버스는 외갓집을 향해 달렸다. 이윽고 도착한 외갓집에는 홀로 되신 외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를 비롯하여 4대가 살고 있었다. 여름방학에 맞은 아들과 함께 처음 맞은 친정나들이인 어머니는 한 보름 외가에 머물기로 한 모양이다. 인근에 사는 이모들을 비롯한 친척들을 두루 만나면서 쌓인 이야기를 나누고 지내셨다. 그동안 나는 해만 뜨면 고베 풀린 망아지마냥 막내 외삼촌과 들로 바다로 돌아다녔다. 바다는 처음인지라 여름 햇살에 물비늘이 반짝이며 고깃배가 떠가는 풍경은 신기하게만 보였다.

돌로 쌓은 물웅덩이는 마치 항아리를 닮은 물고기 저금통 같았다. 독초를 풀어 막대기로 휘저어 놓으면 서서히 물고기들이 떠올랐다. 메기, 민물장어 등이 먼저 떠오르고 붕어 등 차례로 떠올랐다. 손으로 잡거나 소쿠리로 뜨기만 하면 되었다. 큰 고생 없이 금방 양동이에 한 가득 찼다. 해가 질 무렵에야 기진맥진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외할아버지는 멀리서 온 외손자야단은 못 치고 “어릴 갔다 이제야 오냐. 다지거나 하면 어찌려고 그러” 하 시며 막내 외삼촌만 혼을 내셨다. 대체잡은 물고기는 “먹지도 못할 거 잡아 왔다”며 돼지 밥그릇에 부어 버리셨다.

외갓집은 내가 사는 정읍과 비슷한 전라도 농촌이지만 밭새가 다르고 풍습도 다르다. 우물가에는 꽤 오래된 유자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땀자보다 훨씬 크게 달려 있었다. 그때는 어리고 잘 몰라 그렇게 귀한 나무인지는 몰랐다. 마을 뒤에는 팔영산이 병풍처럼 우뚝 서있고 산 주위로 펼쳐진 풍경은 호남평야가 펼쳐진 내가 사는 곳과 무언가 달랐다. 그렇게 한 보름 다녀온 나는 한 달 동안은 자신도 모르게 익힌 남도 사투리로 친구들 앞에서 외갓집 이야기를 자랑처럼 했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신 외갓집의 추억이 옛날이야기처럼 잊히고 있다.

社說

반복되는 음식물 쓰레기 대란 근본 대책 없나

학교 급식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처리해 오던 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광주에서 또다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 처리 업체의 화재로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유사한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가 그제 폐업 절차에 들어가면서 음식점과 학교 급식소 등 다량 배출 사업소 230여 곳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업체는 자신들이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최종 처리해 주던 민간 자원화시설이 문을 닫자 동반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자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광주 지역 86개 초·중·고교가 운데 50여 개 학교는 다른 업체와 새로 계약을 했지만 나머지 30여 개교는 업체 측이 용량 초과를 이유로 처리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7월 말에도 처리 업체의 화재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중단된 바 있다.

현재 광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최대 500t으로 가정이나 소형 음식점은 각 자치구에서 수거해 공공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또 대형 음식점 점과 집단 급식소 등 대량 배출 업체·기관은 열세 개의 민간 수거·처리 업체에서 처리하는데 배출량이 많아 전복 등 다른 지역까지 보내야 하는 형편이다. 민간 업체 중 단 한 곳이라도 폐업하거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음식물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에 의존하는 현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자체나 공기기업이 직접 관리·경영하는 공공 처리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다량 배출 사업소의 재활용 및 자체 처리 강화 등 다양한 근본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한우 둔갑 소고기 유통되고 있구나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린 농수축산물 원산지 둔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산 소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정육판매점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전남 지역 정육 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최근 소고기 원산지를 속인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10곳의 관계자를 입건했다. 여수에서 정육판매점을 운영하는 A(56) 씨는 올해 1-8월 사이 미국산 갈비살 65kg을 202만 원에 구입한 뒤 715만 원에 팔아 513만 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그는 식육 표시판과 라벨지에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기해 왔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게 옆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 외국산 소고기를 따로 보관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지역 소고기를 장흥산으로 속여 판 업체 아홉 곳도 달미를 잡았다. 이 업체들은 장흥토요시장에서 식당

을 운영하는 업체로 각각 월 매출이 1억 원이 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TV홈쇼핑이나 통신판매업체 및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할 때 다른 지역에서 사육된 소의 원산지를 ‘전남 장흥’으로 표시했다. 특히 ‘구제역 없는 청정도시 장흥의 신선하고 풍미가 뛰어난’ ‘장흥한우의 자존심’으로 1등급 이상 한우 암소만’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속였다.

장흥한우는 브랜드가 없는 다른 지역 한우보다 100g당 500-1000원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인지도가 좋아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온 브랜드다. 하지만 잇속만을 노린 일부 업자들이 위법 행위를 통해 이러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인 동시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보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지켜 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는 늘 속명 처럼 태풍과 전쟁을 벌여 왔다. 서해안으로 올라오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배를 육지로 옮기면서 부르는 ‘배 설거지’ 노래가 가거도만의 노동요로 전해 내려오는 것도 태풍과 무관치 않다.

가거도에서 태풍과의 전쟁을 상징하는 것은 방파제다. 가거도 방파제는 1979년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태풍과 인간 건축 기술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셀마(1987년), 프라피룬(2000년), 라마순(2002년) 등 세 차례 큰 태풍과의 밀고 밀리는 싸움 끝에 방파제는 착공 29년 만인 2008년 준공했다. 1325억 원이나 들여 64t짜리 테트라포트 5000여 개와 108t 큐브블럭 600여 개를 설치해 완공하자 한 방송사는 ‘태풍과의 전쟁에서 인간이 판정승을 거둔 공사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파제는 2011년 태풍 ‘무이파’와 2012년 ‘블라벤’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블라벤 때는 방파제 480m중 350m가 파손됐고 테트라포트 2500여 개가 유실됐다. 이에 정부는 2200억 원을 들여 100년 주기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수

퍼파제 공사를 2013년부터 시작했다. 15m이던 방파제 상부를 추구장 다섯 개 너비인 106m로 늘리고 아파트 10층 높이(28m)에 무게 1만짜리 대형 케이슨(블럭) 16개를 설치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방파제 공사였다.

며칠 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에 케이슨 1개가 파손됐다. 후면부 20m가 부서졌다고 하지만 순간 최대풍속 52.5m로 역대 5위 규모의 바람에 방파제 보호의 핵심 역할을 하는 케이슨이 파손된 것이다. 가거도 방파제 공사가 40년째 이어져 온 것을 두고 일각에선 기술력 부족보다는 부실공사가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영 전 전남 지사 역시 2012년 가거도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파제 파손은 천재가 아닌 부실 공사로 인한 인재”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정대로라면 슈퍼방파제는 내년 말 완공된다. 40년 끌어온 가거도 방파제 공사가 무사히 끝나, 이름 그대로 ‘가허 사람이살 만한 섬’ 가거도(可居島)가 됐으면 한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체육부 220-0633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